

제10강 - 오딧세우스의 모험 『오딧세이아』

(1교시)

◆ 오딧세이아①

※ 학습목표

호메로스의 『오딧세이아』와 오딧세우스의 모험에 대해 알아본다.

▲ 『오딧세이아』에 관하여

■ 『오딧세이아』는 오딧세우스가 트로이아에서 자신의 왕국인 이타케로 돌아가는 10년 동안 겪은 모험담이 기술된 영웅서사시

■ 3가지 중심 주제

- 오딧세우스의 귀환
- 텔레마코스의 성장
- 오딧세우스와 텔레마코스의 모험

트로이아 전쟁에 참전했던 그리스 영웅들은 전쟁종료 후 고향 집으로 돌아오나 오딧세우스의 귀환에는 10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태양신 헬리오스의 신성한 가축을 잡아먹고 포세이돈의 아들을 죽여 신들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다. 전쟁기간과 모험기간을 합쳐 최소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서야 오딧세우스는 고향인 이타케왕국으로 돌아온다.

▲ 『오딧세이아』의 세 주인공

콜롬비아 대학의 하이엣 교수는 이 세 가지 주제와 관련, 『오딧세이아』의 주인공도 셋으로 잡는다. 오딧세우스와 텔레마코스, 그리고 그들의 수호신인 아테나여신이다. 오딧세우스는 가장 현명했던 영웅이다. 그리스신화에서 영웅의 수호신은 주로 아테나여신이다. 오딧세우스는 아테나여신의 충애를 받았으며 모험에서도 그를 돕는다. 그래서 하이엣 교수는 『오딧세이아』의 주인공을 오딧세우스, 텔레마코스, 지혜의 여신 아테나 이 셋으로 본다.

▲ 호메로스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오딧세이아』

아직도 호메로스의 작품인지 진위논란이 있는 『오딧세이아』도 호메로스의 작품이라고 추론하는 이유는 『오딧세이아』의 첫 구절과 관련된다. 호메로스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적 순서를 무시한 구성과 작품의 주인공과 주제를 작품 첫머리에 밝힌다는 것이다.

일리아스의 첫 구절	『오뒤세이아』 첫 구절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들려주소서 뮤즈 여신이여, 트로이아의 신성한 도시들을 파괴한 뒤 많이도 떠돌아다녔던 임기응변에 능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 첫 머리는 공통적으로 뮤즈여신에게 간청하는 방식.
-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 ‘트로이아의 신성한 도시들을 파괴한 뒤 많이도 떠돌아다녔던 임기응변에 능한 그 사람’ →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밝힘
- ‘분노’, ‘많이도 떠돌아다녔던’ - 각각 분노와 모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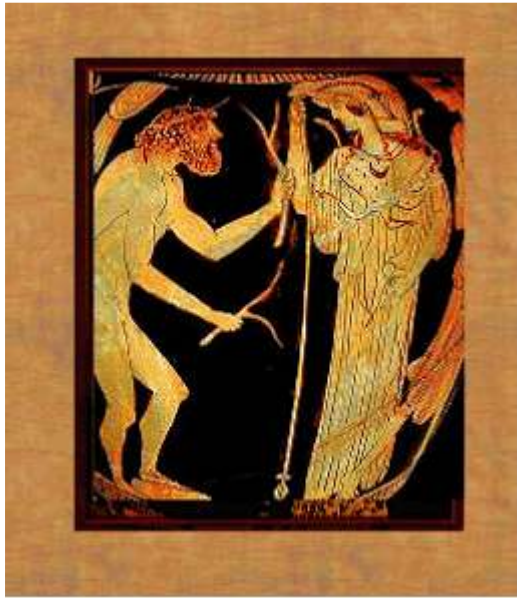
이렇게 두 작품의 첫 구절은 동일한 구성과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오뒤세이아』 호메로스적 전통을 그대로 따른 호메로스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 지략의 영웅 오뒤세우스



오뒤세우스 Odysseus

오뒤세우스는 모든 그리스 영웅 중에서도 정신적인 면, 지략이 특출한 인물이다. 물론 영웅으로 손색없는 육체적, 전투적 능력도 가지고 있다. 트로이아 전쟁의 후반부에서 그는 팔라디온을 훔쳐내고 트로이 목마 작전을 세워 트로이아 성을 함락시켰다. 그것을 통해 오디세우스가 지략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오뒤세우스의 10년 동안의 모험에도 지혜와 정의의 여신 아테나가 함께 한다.



아테나와 오뒤세우스

▲ 파란만장한 모험의 시작

오뒤세우스 일행은 키코네스족이 사는 항구도시인 이스마로스에 상륙하지만 그곳 주민들과의 싸움으로 그곳에서 모든 부하를 거의 다 잃고 만다.(최초의 모험) 이때부터 오뒤세우스의 귀향이 순조롭지 않다. 폭풍으로 아흐레 동안(9-고난의 수) 표류한 후 로토파고스에 정박하게 된다. 그곳 사람들은 연근 같은 것을 먹고 살았는데 그것을 음식으로 취하면 모든 기억을 잃고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착각에 빠진다. 오뒤세우스는 부하 셋을 보내지만 그들은 그 음식을 받아먹고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오뒤세우스는 그곳에 살겠다고 우기는 부하들을 밧줄로 묶어 다시 빠져나온다. 그리고 외눈박이 거인인 퀴클로페스, 폴리페모스의 섬에 도착한다.

▲ 퀴클로페스에 관하여

- 퀴클로페스 : 외눈박이라는 뜻 (정수리에 눈이 하나만 있음)
- 퀴클로페스의 족보

```

최초의 신 카오스chaos
      |
에레보스Erebos + 닉스Nyx
      |
헤메라Hemera   아이테르Aeter
      |
가이아Gaea(스스로 생명을 얻음)
      + |
우라노스Uranus + 가이아Gaea
  
```

티탄12형제(초기에 세상을 지배한 티탄 12주신), 퀴클로페스 3형제, 헤카톤케이레스 3형제

퀴클로페스 - 제우스에게 불벼락을 무기로 만들어 줌. 불벼락이 제우스의 오른손에서 지상으로 떨어지면 천둥, 벼락, 번개가 동시에 친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최고의 신 제우스의 무기를 천둥, 벼락, 번개로 생각한 것은 그것들을 가장 무서운 재해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헤카톤케이레스 - 고대그리스에서 헤카스는 100, 케이레스 손 - 백수 3형제. 한 몸에 손이 백 개고 머리가 50개이다.

우라노스는 이들의 이상한 모습과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 저지르는 후안무치한 행동에 화가 나 무한지옥 타르타로스에 가두게 되고 이에 가이아가 크로노스와 힘을 합쳐 우라노스를 거세한 것이다.

▲ 외눈박이 거인의 섬



폴리페모스Polyphemos - 정수리에 눈이 하나있고 어마어마한 크기다. 포세이돈의 아들이다.

오뒤세우스 일행은 식량과 물을 보충하기 위해 폴리페모스 섬에 정박한다. 그들은 어떤 동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는 먹을 것이 잔뜩 쌓여있다. 폴리페모스의 거처인 것이다. 오뒤세우스 일행은 식량을 취하려다 발각되어서 부하 여섯이 잡아먹힌다. (폴리페모스를 식인괴물이라고 볼 수는 없음) 그리고 동굴 안에 갇히게 된다. 이때 지략가 오뒤세우스는 포도주로 폴리페모스를 취하게 하고 아름답리 통나무를 불속에 넣어서 빨갱게 달군 후 부하와 함께 잠든 폴리페모스의 눈을 찌른다. 눈이 지저진 폴리페모스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오뒤세우스는 폴리페모스가 기르던 양떼들을 세 마리씩 묶는다. 폴리페모스는 양을 치는 거인이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 양들을 데리고 나간다. 그는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떼들을 내보내고 그때 오뒤세우스와 부하들은 양들의 배 밑에 숨어 폴리페모스의 검사를 피해 무사히 탈출한다. 그러나 그들은 포세이돈의 노여움-자신의 아들의 눈을 멀게 한데 대한-을 사 진짜 유랑이 시작된다.

▲ 마법사 키르케



마법사 키르케

마법사 키르케는 태양신 헬리오스의 딸로 키르케가 건네주는 술을 받아 마시면 모두 돼지로 변신한다. 키르케가 오딧세우스의 부하들을 돼지로 만들지만 오딧세우스는 약초를 구해 부하를 탈출시켜 다시 바다로 오른다.

▲ 세이레네스의 섬



세이렌이라고도 불리는 바다괴물로 얼굴은 아름다운 여인이고 몸은 바닷새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들은 선원들은 그 소리에 취해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진다고 한다. (현재의 사이렌이 여기서 유래)

세이레네스의 아름다운 목소리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 오디세우스는 선원들의 귀를 막게 하고 스스로 자신의 몸을 돛대에 밧줄로 묶어서 빠져나온다.



▲ 스킬라와 카리브디스



오뒷세우스 일행은 세이레네스에게서 빠져나오자마자 스킬라를 만나게 된다. 스킬라는 대단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키르케에 의해 머리가 여섯 달린 뱀으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바다뱀이 되어 자신이 살고 있는 바다 위를 지나가는 선원들을 잡아먹는다. 스킬라뿐만 아니라 스킬라 인근에 살던 괴물 중 카리브디스라는 괴물이 있다. 그는 자신이 거주한 바다에서 하루 세 번 소용돌이를 일으킨다. 이렇게 스킬라와 카리브디스는 험악한 바다괴물로 묘사된다.

* Between Skylla and Charybdis - 우리말로 진퇴양난이라는 영어 속어
오뒷세우스 일행은 그곳도 무사히 빠져나오게 된다.

제10강 - 오딧세우스의 모험 『오딧세이아』

(2교시)

◆ 오딧세이아②

※ 학습목표

이타케 왕국으로 돌아간 후 오딧세우스가 겪는 일에 대해 알아보고 호메로스의 두 권의 서사가 나타내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 칼립소의 섬

오딧세우스가 그 다음 도착한 곳은 아름다운 요정 칼립소가 다스리는 섬이다.



칼립소

오딧세우스는 총 10년의 모험기간 동안 무려 7년을 그 섬에 머무르게 된다. 칼립소는 오딧세우스에게 자신의 남편이 되어주면 불사의 생명을 주겠다고 하여 놓아주지 않는다.

- 그리스인들과 죽음

그리스 사람들은 모두 별자리가 되는 것이 최대의 소망이다. 영광과 ‘불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공포이자 해결되지 않은 공포이다.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데스의 상징은 머리에 쓰면 보이지 않는 투구 퀴니에Kynē다.(죽음은 인간의 앞, 인식의 대상이 아님을 상징)

철학자 플라톤은 모든 인간은 죽어서 반드시 엘리시온으로 가기를 원하고 엘리시온에 가려면 사는 동안 Philosophy, 지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한다.

칼립소는 7년 동안 자신의 섬에 오뒤세우스를 잡아두고 불사의 존재로 만들어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오뒤세우스는 거부한다. 인간으로 가장 피하기 힘든 유혹을 거부한 것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 아내 페넬로페와 텔레마코스를 만나려는 욕구가 불멸의 삶에 대한 것보다 컸기 때문이다.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시켜 칼립소에게 오뒤세우스를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전한다. 칼립소는 직접 뗏목을 마련해 오뒤세우스를 보내준다.

그러나 오뒤세우스는 바로 이타케로 돌아오지 못한다. 또 정박한 섬에서는 에우로케이아라고 하는 그곳 공주로부터도 남편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을 거절한다.



오뒤세우스와 에우로케이아

▲ 20여년만에 이타케 왕국으로 돌아온 오뒤세우스

이런 10년간의 모험 후 오뒤세우스는 부하들을 대부분 잃은 상태로 자신의 왕국 이타케로 돌아온다. 자신의 왕궁으로 뛰어 들어가 아내와 아들을 만나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

트로이아 전쟁 종료 후 오랜 세월이 걸려도 돌아오지 않자 사람들은 오뒤세우스가 전사했다고 믿게 된다. 그래서 왕국은 왕을 잃고 미망인이 된 페넬로페에게는 이타케 전역의 구혼자들이 몰려오게 된다. 그들의 수는 100명이 넘는다. 이들은 왕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타케 성에 와서 페넬로페에게 구혼하며 이타케 왕궁 안을 점령하고 있었다. 그곳에 들어가 오뒤세우스임을 밝힌다면 - 오뒤세우스는 20년 이상의 세월을 거치며 아내인 페넬로페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모습이 변했다 -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오뒤세우스는 왕궁에서 떨어진 곳에 거처하고 있는 돼지를 잡던 자신의 시종 집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테나 여신의 도움으로 아들 텔레마코스와 20년 만에 만난다.

▲ 페넬로페의 베짜기



페넬로페의 베짜기

구혼자들에게 시달리던 오뒤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는 시아버지의 수의를 짤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한다. 수의를 짜는 데는 3년이 걸린다. 구혼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낮 동안에

는 끊임없이 짜다가 밤에 구혼자들이 술에 취해 잠들면 푸는 것을 반복한 것이다. 그러나 그 사실이 페넬로페의 방을 지켰던 하녀를 통해 구혼자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더 이상 남편을 정하는 일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페넬로페는 12개의 도끼자루를 세워놓고 오뒤세우스가 사용하던 활에 시위를 걸어 화살을 쏘아 모두 관통시키면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한다.

* 12, 10 - 완전수

피타고라스

. 1

- 2

△ 3

○ 4

모두 더하면 완전수 10으로 오뒤세우스의 전쟁기간과 모험기간도 10년이 소요

▲ 거지로 변장한 오뒤세우스

도끼자루를 쏘아 맞추는 시험이 열리는 연회장 문을 열고 거지 하나가 들어온다. 바로 거지로 변신한 오뒤세우스다.

그리스 신화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신분을 거지로 낮추거나 변장한 경우는 오뒤세우스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리스 영웅의 모델이 되는 헤라클레스는 몸의 살이 찢겨나가 영웅의 면모가 없게 되자 죽음을 택했다. 하물며 아무리 선한 목적이 있다고 해서 자신의 신분을 낮추거나 변장하는 경우는 없다.

이것은 호메로스가 자신의 주인공을 다루는 특징이다. 그는 오뒤세우스가 돼지를 치는 하인의 집에서 불가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마치 불에 익혀지고 있는 소세지처럼’이라고 묘사한다.

▲ 오뒤세우스의 응징

거지의 모습으로 변신한 오디세우스가 연회장으로 들어오자 술이 퍼부어지는 등 갖은 수모가 주어진다. 구혼자들은 줄을 서 페넬로페의 시험에 응하지만 활의 시위조차 걸지 못한다. 모든 구혼자들이 포기했을 때 오디세우스가 활을 잡고 시위를 걸어 열두 개의 도끼자루를 화살로 관통시킨다. 그것은 자신이 오뒤세우스임과 동시에 페넬로페를 아내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변장을 벗어내고 자신이 오뒤세우스임을 밝힌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농락하고 자신의 왕궁을 약탈한 구혼자들을 아들 텔레마코스과 몇몇 하인들과 함께 처단한다. 이때 아테나여신도 돕는다.

▲ 페넬로페와의 재회

그 후 페넬로페 왕비의 침실로 들어가지만 페넬로페는 남편 오뒤세우스를 알아보지 못한다. 오뒤세우스가 항의하자 페넬로페는 하인들에게 오뒤세우스라고 주장하는 이 남자가 설 수 있도록 20년 전에 쓰던 침대를 밖으로 옮겨 그곳에서 편하게 잘 수 있게 하라고 한다. 이것이 페넬로페가 이 사람이 진정한 자신의 남편인지 알아보는 방법이다.

오뒤세우스는 크게 화를 내며 ‘여인이여, 누가 우리의 침대를 옮길 수 있단 말시오?’ 라고 한다. 오뒤세우스는 아름다운 페넬로페를 맞이하며 자신들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자신의 왕국에서 가장 큰 올리브나무를 베고 그 밑동을 침대로 사용했던 것이다. 그 사실은 그들 둘과 침실하녀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페넬로페는 그가 자신의 남편임을 안다. 그렇게 오뒤세우스는 그렇게 그리던 아들 텔레마코스와 왕비 페넬로페를 만나게 된다. 또 다른 비극작품에 의하면 오뒤세우스는 모험을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아내와 아들을 만난 후 다시 모험의 길을 떠났다고도 한다.

▲ 두 권으로 이루어진 완벽한 영웅의 모습

『일리아드』에 나오는 아킬레우스는 영웅의 두 가지 조건(정신+육체)중 육체적인 면이 강하고 『오뒤세이아』의 주인공 오뒤세우스는 정신적인 모습이 훨씬 강하다. 두 작품 모두를 호메로스의 작품으로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이것이다. 한쪽만 강조되면 진정한 영웅이 아니다. 호메로스는 이 두 가지가 모두 결합된 진정한 영웅, Idea적인 인간을 제시하기 위해 반대되는 강점을 가진 영웅이 등장하는 두 작품을 저작했다. 완전하게 결합된 모습을 그냥 쉽게 던져준 것이 아니라 두 작품을 모두 읽고 그것을 통해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를 호메로스는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신화의 공부 방법

아무리 훌륭한 주석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글을 읽는 것은 그 사람이 이해한 것을 다시 이해하는 것이다. 원전의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가장 좋다. 가장 좋은 것은 끈기와 인내를 요구하는 작품이지만 『일리아드』, 『오뒤세이아』를 직접 읽어보는 것이다.

또 그리스신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3대 비극작가의 작품들과 헤시오도스의 『신통기』를 추천한다. 오비디우스나 벌핀치의 이야기 역시 참고할만하나 원전에서 왜곡된 부분이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스스로 원전을 찾아서 읽도록 하자.

■참고자료



헤시오도스 『신통기』 한길사, 2004